

보도시점 2025. 3. 24.(월) 11:00 배포 2025. 3. 24.(월) 09:00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 △대체거래소(ATS) 개설에 따른 복수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상황 점검, △신종 불공정거래(사모CB 악용) 대응·조치사례 공유 및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운용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3월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협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25년 제1차 조심협 개요 >

- 일시/장소 : '25.3.24.(월)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법률자문관, 자본시장조사담당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  
(검 찰) 고영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첫째,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대체거래소 개설로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금번 조심협에서는 복수의 시장(KRX, 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하였다. 그동안

거래소는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예방 및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25.3.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하여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다. 향후에도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 점검 및 개선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 거래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하여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 논의 하였다.**

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21년 9.3조원을 정점으로 금융당국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24년 5.8조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❶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❷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❸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❹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별첨 1 참고)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21.10월) 최대주주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시가변동에 따른 사모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화 등

('24.12월)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만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70%) 예외 적용 허용(정관에 따른 근거 삭제)

금융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어, 금년 4월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426조의3).

동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되며,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올해부터 증선위 조치내역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증선위 회의 종료 이후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서는 보도참고자료로서 해당 내용을 배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마련도 준비 중에 있다.

\* ❶ 정치테마주 품문 유포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25.1.9)

❷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조치(25.1.31)

❸ 제약사 창업주 2세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25.2.17)

❹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25.3.11)

❺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25.3.12) 등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하였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별첨1]**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조치 사례

**[별첨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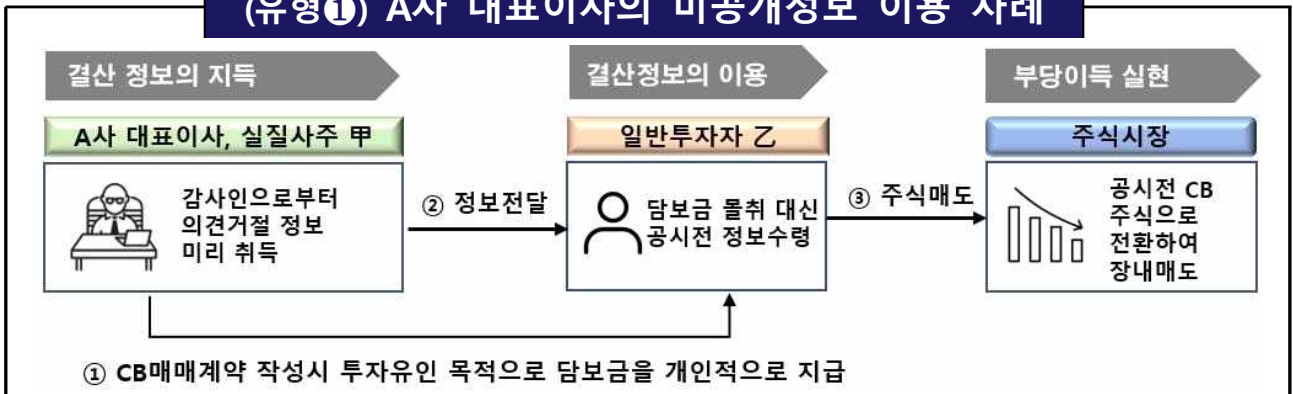
|               |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금융위원회<br>자본시장조사총괄과 | 책임자 | 서기관 | 조문희 | (02-2100-2600) |
|               |                    | 담당자 | 사무관 | 최민혁 | (02-2100-2606) |
| <공동>          | 금융위원회<br>자본시장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정현직 | (02-2100-2601)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관범 | (02-2100-2596) |
| <공동>          | 금융위원회<br>공정시장과     | 책임자 | 과 장 | 최치연 | (02-2100-268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지호 | (02-2100-2688) |
| <공동>          | 금융감독원<br>조사1국      | 책임자 | 국 장 | 권영발 | (02-3145-5550) |
|               |                    | 담당자 | 팀 장 | 김기복 | (02-3145-5560) |
| <공동>          | 한국거래소<br>심리1부      | 책임자 | 부 장 | 이종상 | (02-3774-9140) |
|               |                    | 담당자 | 팀 장 | 박 청 | (02-3774-9142) |

## 별첨1

##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조치 사례

### 유형 ①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후 주식 매도(미공개정보 이용)

#### (유형①) A사 대표이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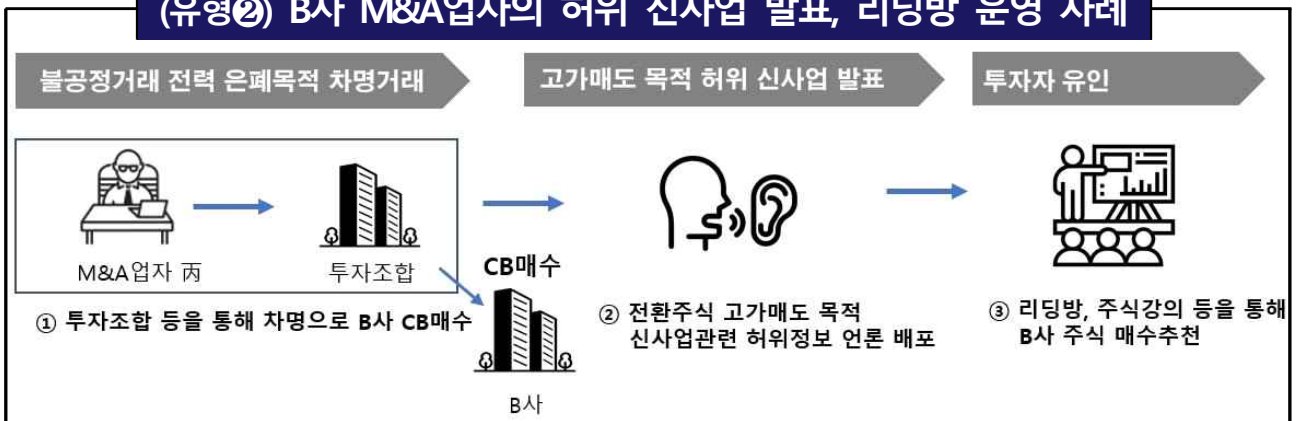


- A사 대표이사·실질사주 甲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정보를 미리 듣고 일반투자자 乙에게 CB 매도시 제공한 담보금 몰취 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를 乙에게 전달

- 乙은 감사의견 공시 전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장내 매도(→ 甲, 乙 검찰 통보)

### 유형 ②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리딩방 운영(부정거래)

#### (유형②) B사 M&A업자의 허위 신사업 발표, 리딩방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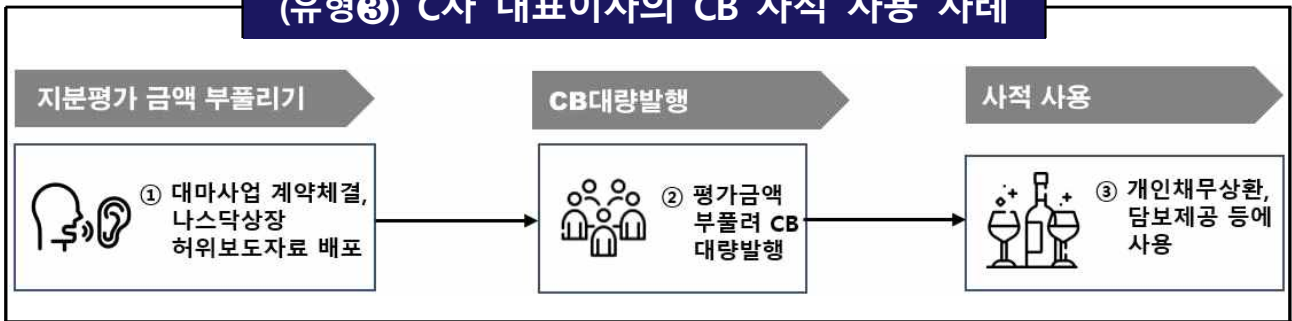


- M&A업자 丙은 불공정거래 전력을 은폐하기 위해 투자조합 등 차명으로 B사 CB를 매수한 이후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와 M&A를 통한 2차 전지 사업진출 허위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고, 지인과 공모하여 리딩방, 주식 강의 등을 통해 B사 주식 매수를 추천 (→ 丙 검찰 고발)

### 유형 ③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부정거래)

#### (유형③) C사 대표이사의 CB 사적 사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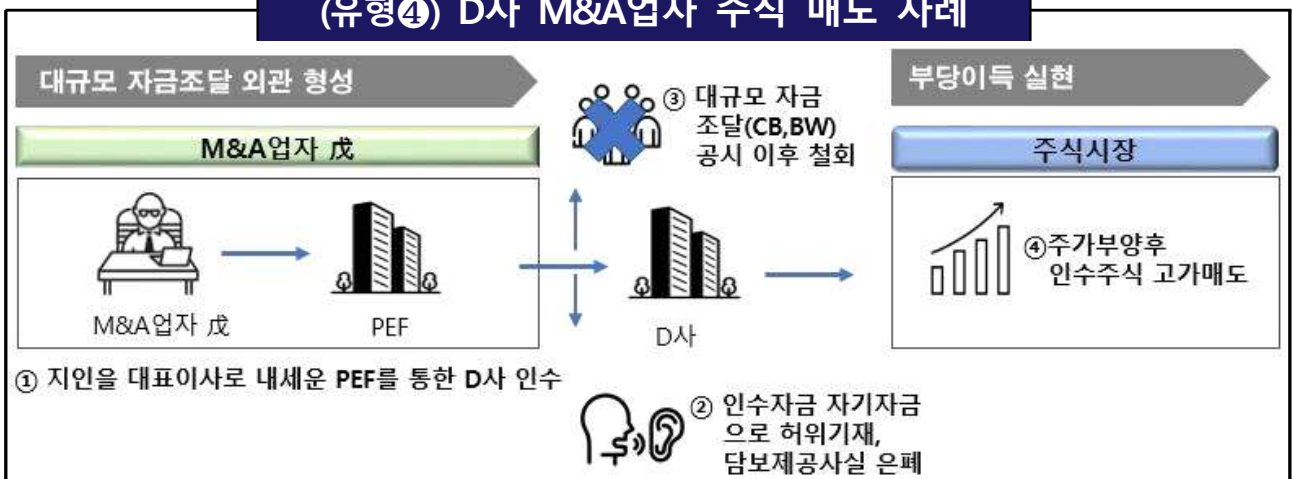


- C사 대표이사·실질사주 丁은 美 비상장사 지분 평가 금액을 부풀린 후 지분 인수 대가로 CB를 대량 발행하면서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수취
  - 美 비상장사 대마 사업 관련 계약 체결, 나스닥 상장 등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이후 CB를 개인채무 상환, 담보 제공 등으로 사용\* (→ 丁 검찰 고발)

\* 美 비상장사 지분은 이후 대부분 손상차손 인식

### 유형 ④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부정거래)

#### (유형④) D사 M&A업자 주식 매도 사례



- M&A업자 戊는 전력 은폐, 건전한 인수 외관 형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경력이 있는 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PEF를 통해 D사를 인수하면서
  - 인수자금(사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하고 인수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대규모 자금 조달(CB·BW 발행) 공시 이후 철회하는 방법으로 주가 부양후 인수 주식 고가 매도 (→ 戊 검찰 고발)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 1. 시장감시 현황 (거래소)

□ 시장경보 건수는 월평균 256건이고, 예방조치 건수는 월평균 538건입니다('24.10월~'25.2월).

| 구 분              |      | '24.10월 | '24.11월 | '24.12월 | '25.1월 | '25.2월 |
|------------------|------|---------|---------|---------|--------|--------|
| 시장경보             | 투자주의 | 172건    | 230건    | 387건    | 197건   | 177건   |
|                  | 투자경고 | 22건     | 10건     | 39건     | 22건    | 23건    |
|                  | 투자위험 | 0건      | 0건      | 1건      | 1건     | 1건     |
|                  | 소 계  | 194건    | 240건    | 427건    | 220건   | 201건   |
| 예방조치 (서면·유선경고 등) |      | 551건    | 629건    | 719건    | 382건   | 407건   |

## 2. 심리 현황 (거래소)

□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4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24.10월~'25.2월).

| 구 분  | '24.10월 | '24.11월 | '24.12월 | '25.1월 | '25.2월 |
|------|---------|---------|---------|--------|--------|
| 신규착수 | 8건      | 14건     | 8건      | 11건    | 8건     |
| 종결   | 9건      | 14건     | 14건     | 7건     | 19건    |
| 진행중  | 14건     | 14건     | 13건     | 12건    | 16건    |

## 3. 조사·조치 현황 (금융위, 금감원)

□ 금융위·금감원은 '24.11월말 현재 200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구 분 |           | '24.10월  | '24.11월   | '24.12월   | '25.1월    | '25.2월    |
|-----|-----------|----------|-----------|-----------|-----------|-----------|
| 조사  | 신규 착수     | 4건       | 13건       | 3건        | 7건        | 16건       |
|     | 종결        | 25건      | 8건        | 29건       | 19건       | 26건       |
|     | 진행중       | 195건     | 200건      | 179건      | 157건      | 154건      |
| 조치  | 고발        | 4명, 1개사  | 2명, 1개사   | 7명, 2개사   | 8명, 3개사   | 36명, 3개사  |
|     | 통보        | 3명       | 13명, 1개사  | 21명, 9개사  | 12명       | 9명, 2개사   |
|     | 과징금       | 9개사      | 6명, 9개사   | 1명, 8개사   | 8명, 11개사  | 2명, 6개사   |
|     | 과태료·주의·경고 | 6개사      | 1개사       | 5명, 9개사   | 1개사       | -         |
|     | 합계        | 7명, 16개사 | 21명, 12개사 | 34명, 28개사 | 28명, 15개사 | 47명, 11개사 |